

박격포 운용 절차 숙달...완벽 화력지원태세 확립

해병대2사단, 후반기 공용화기 경연대회
사격지휘·관측 등 통합운용능력 선배
부대 단결력 강화...전투준비태세 완비

해병대2사단이 박격포 운용부대 장병들의 화기별 운용능력 향상과 실전적인 전투 준비태세 완비를 위해 2025년 후반기 공용화기 경연대회를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진강산훈련장에서 열었다.

이번 대회는 전반기 대회에서 식별된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각 부대의 전투력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은 △명령하달 시 즉각 사격이 가능한 임무수행 능력 구비 △행동화 절차 숙달을 통한 전술 능력 완비 △팀단위 평가를 통한 팀워크 및 부대 단결력 강화 △건전한 경쟁을 통한 전투의지 고취 등에 중점을 두고 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 참가한 박격포(4.2인치, 60·81mm) 운용 장병들은 공용화기에 대한 부대별 사격능력을 겨뤘다. 이들은 사단 통제·평가단의 감독 아래 사격지휘·관측·조포 통합운용능력을 선보였다.

장병들은 명령하달부터 방열·사격까지 단계별 행동절차를 선보이며 실전과 같은



해병대2사단이 진강산훈련장에서 개최한 2025년 후반기 공용화기 경연대회에서 참가 장병들이 81mm 박격포 사격능력을 평가받고 있다.

부대 제공

긴장감 속에서도 완벽한 팀워크와 숙련된 화기 조작능력을 발휘했다. 평가관들은 불필요한 사격준비 활동 근절 등 화기 운용능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사단은 대회를 통해 장병들의 전투 수

행능력과 부대 단결력을 한층 강화했으며 완벽한 화력지원태세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대회에 참가한 김선재 중사는 “박격포 운용요원으로서 임무완수에 대한 자신감

이 생겼고, 부대원들과의 전우애와 단결력을 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완벽한 임무수행으로 언제나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해병대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맹수열 기자

나의 건강이 곧 부대의 전투력 균형 잡힌 생활습관 만들어요

해군교육사, 의무대대 건강증진 캠페인
금연 등 부스 설치하고 전문가 상담

해군교육사령부는 23일 장병·군무원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증진 캠페인’을 전달 사령부 복지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군교육사 의무대대와 진해보건소,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장병·군무원이 전문가 상담 및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균

형 잡힌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금연, 절주, 운동·영양, 구강, 감염관리, 정신건강 등 6개 건강체험부스를 설치해 진행됐다. 부스를 찾은 장병·군무원은 금연 상담, 치아 진단 검사, 스트레칭 측정 및 우울척도 검사 등을 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운동·영양 부스에서는 체성분 분석기(Inbody)를 이용해 피검자의 체성분을 수치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해군교육사령부가 22일 실시한 ‘건강증진 캠페인’에서 금연부스를 찾은 장병이 숨을 내쉴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홍성민 하사

캠페인을 계획한 의무대대 외래지원간호담당 진하는 대위는 “개인의 건강이 곧 조직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며 “캠페인을

계기로 장병·군무원 모두가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고 돌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자폭드론·미사일 공격, 최단시간에 위협 제거

해군3함대, 복합전 기지방호훈련
다양한 적 도발 대응능력 등 숙달

해군3함대가 다양한 적 도발 위협으로부터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다. 3함대는 22·23일 부대 일대에서 ‘2025년 광주·전남권역 화랑훈련’의 하나로 복합전 대비 기지방호훈련을 했다.

훈련에는 3기지방호전대와 육군32보병사단 기동대대 장병들이 참가했다. 장병들은 자폭 드론, 미사일, 특수전 부대 침투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통합훈련을 소화했다.

훈련 첫날은 자폭 드론과 적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절차 숙달에 중점을 뒀다. 부대 상공에 미확인 드론이 접근하자 5분 대기 전투부대가 전파차단장비를 이용, 드론을 식별·무력화하고 조종자를 검거했다. 이어 적 미사일 공격으로 부대 내 활주로가 파손된 상황이 부여됐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화생방신속대응팀(CRRT)은 오염 제독과 확산 차단 조치에 나섰다. 이어 3함대 공병대대 장병들이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로 활주로를 복구했다.

다음 날에는 적 특수전 부대가 군항에 침투하는 상황에 맞춰 기지방호훈련이 진행

됐다. 적 역할을 맡은 32사단 특수작전 요원들이 부대에 침투해 주요시설을 공격하자 기지방호전대 장병들은 이를 식별·격퇴하며 초동 대응 능력을 키웠다.

3함대는 훈련을 통해 장병들이 복합적인 공격에 대한 통합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상황실과 현장 사이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 전파·지휘체계 운용, 대테러 대응절차 등을 숙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기현(중령) 3함대 군사경찰대대장은 “훈련은 복합전양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장병들은 신속한 초동 대



해군3함대가 실시한 복합전 대비 기지방호훈련에서 화생방신속대응팀(CRRT) 요원들이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된 활주로 인근에서 오염 제독 및 확산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부대 제공

처와 상황 공유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완전한 기지방호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